

빅뱅 승리, 첫 단독 콘서트 ... 12년 만

빅뱅의 승리가 데뷔 12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승리가 8월 4~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승리 2018 퍼스트 솔로 투어 [더 그레이티스트 승리] 인 서울' (SEUNGRI 2018 1st SOLO TOUR [THE GREAT SEUNGRI] IN SEOUL) 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빅뱅의 막내 혹은 사업가 승리가 아닌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무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첫 단독 콘서트인 만큼 승리의 개인적인 매력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무대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는 라이브 밴드 연주와 DJ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음악 구성을 통해 다른 아티스트들이 쉽게 시도하지 않은 색다른 무대가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대 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예고한 승리는 7월 초 정규 1집 앨범을 통해 가요계에 컴백한다.



아이유, '아이스 버킷챌린지' 참여



아이유(사진)가 루게릭 요양 병원의 건립을 위한 2018 아이스버킷챌린지에 동참했다.

아이유는 3일 인스타그램에 아이스버킷챌린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아이유는 에이핑크 정은지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루게릭 환우분들, 가족분들, 루게릭 요양 병원 건립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아이유는 이어 아이스버킷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절친한 사이인 배우 강한나와 작사가 김이나, 가수 선우정아를 지목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색 경화증·ALS)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진행되는 이벤트로, 2014년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에 퍼진 캠페인이다. SNS에 얼음물을 뒤집어쓴 사람이 바통을 이어 받을 세 명을 지목하면 24시간 안에 기부금을 기부하거나 얼음물 뒤집어쓰기를 선택한다.

함소원 '18세 연하' 남편 만나기 전 난자 냉동

배우 함소원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고민을 털어냈다. 함소원은 5일, 18세 연하 중국인 남편 진화와 한 매체에 출연해 2세 계획을 밝혔다.



43세인 함소원은 "35세만 돼도 고령임신"이라며 "노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함소원은 "남편을 만나기 6개월 전에 난자를 얼렸다"며 "당시 결혼을 포기하고 난자 15개 정도를 얼렸다. 결혼은 안 해도 아이는 갖고 싶었다."고 털어냈다.

업을 하고 있다. 의류 생산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직원은 40~50명 정도"라고 밝혔다.

여의도 3~4배 크기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농장은 가족이 해서 잘 모른다. 대규모 쌀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함소원은 "쌀 생산과 관련된 큰 농지일 뿐 투기 목적의 땅이 아니다. 땅부자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함소원과 진화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올여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소원의 결혼 소식이 국내에 전해진 후 진화가 재벌 2세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진화는 방송에서 "SNS 의류 사

1215호 숫자퍼즐 정답

8	1	4	9	6	7	3	2	5
3	5	9	1	2	8	4	6	7
2	6	7	5	3	4	9	1	8
4	8	1	7	9	5	6	3	2
5	2	6	3	8	1	7	9	4
7	9	3	2	4	6	8	5	1
1	3	5	8	7	9	2	4	6
9	4	8	6	5	2	1	7	3
6	7	2	4	1	3	5	8	9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속세(俗世)와는 인연이 먼 팔자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어떤 중년 부인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인의 사주를 보면서 팔자가 건넌 말은 "타고난 팔자가 그래도 남들이 알아줄만한 글과 학문을 이룰 수 있는 팔자가 되고 남다른 미모와 손기술도 있는 팔자가 되지만 먹을복과 재물복이 박하고 여자 팔자로서 배우자복도 박한 사주가 됩니다. 고전(古典)식으로 풀이하면 이런 사주는 보통 세속적인 재물활동을 하기보다는 산중에 들어가서 도(道)를 닦거나 수행을 해야 할 팔자라고 말하는 사주가 되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부인이 대뜸 묻는 말이 "제가 지금이라도 출가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다. 이어서 팔자가 해준 이야기는 "원래

부인이 타고난 팔자 자체는 속세를 떠나 산중에서 생활하는 출가를 할 수 있는 팔자가 되고 또 지나온 운의 흐름을 볼 때 충분히 속세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가한다는 것도 모진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운의 흐름을 볼 때 부인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출가하도록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손발이 바쁘게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그래도 남은 여생동안은 먹을 복이 있는 세월이 되므로 먹고사는 걱정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해 주었더니 그 부인의 안색이 밝아지는 것이다. 이어서 팔자가 건넌 이야기는 "그래도

부인이 타고난 팔자를 보면 손기술이 있으니 특수기술성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한다면 그래도 남들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이다. 그 부인이 돌아가고 나서 팔자가 혼자서 생각한 것은 옛날 같으면 절간에 들어가서 스님들에게 밥을 해주는 공양주(供養主)나 한다면 제격인 사주로서 세속적인 일과는 거리가 먼 사주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인연이 닿아야 가능하고 세월이 주는 분수(分數)가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